

Super Segment

정성윤

2024년 7월 19일 ~ 8월 24일

휘슬은 7월 19일(금)부터 8월 24일(토)까지 정성윤 개인전 <Super Segment>를 전시한다. 기계로 수행이 가능한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뒤섞이는 현시대 안에서 정성윤은 기계장치의 내외부적 움직임을 조형적으로 탐구한다. 작가의 입체적 설치물은 직접적인 움직임을 통해 순환의 경로와 체계를 가시화하거나 착시적 효과를 이용해 특정 움직임을 모방하기도 한다. 전시장에 놓여진 총 6점의 설치 작업은 각각 동력이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긴장과 질서, 압축과 팽창, 증식과 소멸을 구현한다.

Strength Beyond Strength

박성민

작가와 지방에서 비엔날레도 함께 돌아볼 겸, 바닷가 근처 독채에서 머물며 며칠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낮에는 커피, 밤에는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숙소에 있는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가 일상에서 음악을 별로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주변과 떨어진 곳이었기에 폴 볼륨으로 오랜만에 뭔가 들어보자는 결심이 들었다. 뭘 틀어볼까 찾던 중 작가가 과거 판테라의 음악에 빠져있었다는 말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나의 플레이리스트에 늘 들어있던 아티스트였기에 이만한 선곡도 없겠다는 생각! 그렇게 재생한 앨범에서 흘러나오는 곡 <Strength Beyond Strength>.

표범이라는 뜻의 Pantera는 미국 남부 출신의 밴드로,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사운드는 독보적인 인상을 준다. 크랭크업한 진공관의 베이스사운드를 추구하는 렉스, 극단적인 V자 EQ세팅의 랜달앰프를 쌓아놓고 연주하는 다임백, 거꾸로 돌려 잡은 드럼 스틱으로 타격을 최대화한 비니, 그리고 목소리에까지 디스토션이 걸려있는 보컬 필립. 밴드는 장르가 금속(metal)이라 이름 붙은 이유를 폭력과 그루브의 사운드로 증명해 낸다.

머리와 몸을 흔들지 않을 수 없는 음악. 떠나가라 울리는 오디오 앞에서 신나게 헤드뱅잉을 한참 하다가 앞을 바라보았다. 미동 없이 조용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작가. 사랑했던 음악 앞에서 동요 없이 조용한 감상이 이뤄지는 상황이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최대로 높은 볼륨으로 3개의 앨범을 연달아 재생하는 동안 내게 비친 작가의 모습은, 그저 질려버렸을 뿐이거나 무심해진 것만은 아닌 듯 보였다. 느닷없이 트랙이 귀에 들려올 때 알게 되는, 꽤 멀리 와버렸구나 같은 것.

작가의 스튜디오에는 판테라의 내한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드러머 비니 풀이 사인해서 던져준 드럼 헤드가 걸려있다. 그 시절을 녹화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밴드에 그 팬이라는 생각이 든다. 파괴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공연. 한국 관객들이 좀 대단하던가. 한데 스탠딩 맨 앞 열에 즐비한 대학생과 미군 사이를 비집고 달려들어 전리품을 기어고 쟁취해 내는 작가의 모습을, 감정이 읽히지 않던 그날을 떠올리면 상상이 잘 가지 않는다. 기타를 치던 메탈 키드는 그렇게 동생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즐기는 선생님이 되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Love Letter>는 작가의 초창기 작품이자 가장 오랫동안 품어온 작품 제목으로 보인다. 2001년에 제작된 <러브레터>와 동명인 이 작품은, 금속으로 만든 두 기둥이 회전하는 형태이다. 수직으로 연속되는 원형 탑의 일부를 포착한 것처럼 생겼다. 이들의 운동은 미세한 거리를 두고 맞닿아있다. 개성 없는 금속 곡면은 서로의 반쪽이 되며 텅 빈 원을 이룬다. 회전하는 기둥은 빈 돌레를 계속해서 생성한다. 누군가 정속 운동은 우리의 감각적 인지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속 30km의 공전 속도를 감지하는 건 인류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나. 하지만 작가는 가장 정속한 움직임을 선택한다. 긴 시간 들여다볼 만한 것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달성해 낸다. 그리고 보니 회전운동을 하는 천체는 늘 구체를 띠고 있다. 관계 사이에서 작동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가장자리를 늘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작가는 천체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덕질이나 마찬가지로, 텅 빈 무한이자, 끝없이 팽창하는 세계의 법칙에는 흥미로움과 두려움이 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무의미한 공간은 절대적인 고립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내향적인 과정은 세 점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Heavy Dots>와 <Milky Way>는 점이 되어, 연속하는 선이 되어, 겹쳐진 면이 되어, 아득한 반복이 되어 놓여있다. 연속되는 층위는 날카로운 모서리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진다. 그득한 덩어리들은 서로를 짓누르며 팽창해 있다. 사건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스타디움과 은하의 모티브에서 출발한 이 두 고립계는, 교란과 붕괴라는 시각적 사건을 관람자 앞에 발생시킨다. <Modified Point>는 공간에 맞춰서 스케일이 결정되었다. 전시장 전면 원도우의 틀 한가운데에서 회전하는 판에는 출력된 이미지가 붙어있다. 중심을 기반으로 축이 돌아가며 그림자를 남기는 듯한 이미지. 3차원 입체감을 불러일으키지만 회전운동은 판의 얇은 단면을 드러낸다. 수직축이 내부와 외부에서 함께 회전하는 설계는 고정된 감상자의 시선을 계속해서 수정한다. 임계점과 경계가 설정됨과 동시에 희미해지는 순간, 세계를 관찰해 온 사람이 건져 올린 역학의 초상들이다.

<VLS>는 바닥과 하중 사이에서 자유로워진 조각이다. 뱀에 대한 오래된 관심이 분한 용수철의 모습은 그 이름도 용의 수염을 한 철(鐵). 전진을 위해 쥐어 짜내야 하는 온몸을 단일부품화한 Snake와, 스트레스를

W

Super Segment

정성윤

2024년 7월 19일 ~ 8월 24일

받아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내는 Spring. 기계적 에너지를 저장한 스프링과 위험한 힘을 품은 뱀이라는 대상은 찰떡같은 등가의 신묘함으로 광채를 내며 전시장을 부유한다. 기계의 어두운 심연까지 접근한 작가가 포획한 꿈틀거리는 생명체를 세상에 내어놓은 모습이다. 또 다른 작품 <Self-discipline>은 동형의 원이 똑같이 조율된 간격의 행렬을 이루는 형태, 나열된 횡들은 앞뒤 코스만을 가로지르고, 그 예리함 때문에 소리 없이 조용하다. 최소한의 마찰에 대한 최대한의 통제. 이는 전후 없는 운동을, 도열 된 침묵 속에서 가능케 한다.

자전적 또는 단일적으로 읽힐 여지가 제거된, 시릴 정도로 단순화된 결과물은 작가의 경험이 온통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풍성한 정보를 우리에게 던진다. 기계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요소와 설계의 역추적. 스스로를 향한 차가운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그 추적의 보고를 더더욱 단순하게 강화한다. 힘을 품은 이 대상들에게는 허구가 틈입할 수 없는 사실만이 서려 있다. 동력을 다루어 움직임을 시도하던 시기를 넘어, 해체를 통한 힘의 이해를, 작가는 물질로 열려놓았다.

작가의 첫 작품과 그만큼 오래된 메탈앨범이 나로 하여금 작가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이끈 것 같다. <Love Letter>와 그날의 경험에는 공통적으로 비어있음이 있다. 비어있음의 가장자리, 거기에 세상의 미스터리가 자리한다. 공허의 둘레에서 작동하는 질서와 분열 사이에서 잡는 균형은 큰 힘을 필요로 한다. Super는 아마 이 같은 통합에 필요한 품과 거창함에 걸맞은 단어였을 것이다. 체화된 덕력과 시간의 힘이라는,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의 계측을 위해, 여섯 가지 형태로 분할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작가가 닿고자 했던 것과 그 너머의 것을 관객인 나는 이 Segment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곱씹어보게 될 것 같다.

정성윤은 기계장치와 그에 따르는 조형을 통해 욕망과 믿음이 확장되어 종말하는 순환의 경로를 그려낸다. 작가는 힘이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 증가하는 엔트로피가 임계점의 사선에서 배회하는 순간의 긴장과 질서를 (비)기능적 기계 메커니즘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이러한 순환 체계가 표상되는 조건들을 탐구하고 있다. 주요 전시로는 «포도의 맛»(2021) 페리지갤러리, 서울시립미술관의 SeMa신진작가지원 프로그램으로 «이클립스»(2014)를 비롯하여 김종영미술관의 «사소한 위협»(2016) 등이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는 2017년 고양스튜디오(국립현대미술관), 2012~13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서울시립미술관) 입주작가로 참여했다.

W